

어린이 혀절단犯 死刑 선고

서울지법 國교생 추행하려다 살해도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 합의부(재판장 金永근 부장판사)는 22일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불태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鄭錫範(피고인)(21)에게 살인 및 시체손괴죄 등을 적용 시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 어린 국민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는 이유로 불태워 살해하는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 1주일만에 또 다시 다른 여자 어린이

이를 강제추행하고 혀를 자르는 반인륜적 죄를 범하고도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鄭(피고인)은 지난 4월 26일 서울강서구 오발산동 덕원초고 뒷산에서 국교 4년생(10)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불태우고 달아났다

로 끌고가 강제추행한 뒤 흉기로 혀를 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가그다음날 2일에는 동작구 신대방1동 문장국교 운동장에서 놀던 유치원생 2명을 이 학교 보일러실